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원

Stressors of Students in High School

강 영 자 · 최 용 주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 대전대학교 강사

Kang, Young Ja · Lecturer. Choi, Yong Joo.
Dept. of Home Management, Tae Jo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essors of students in high school. Demographic data such as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mother's employment, family type, level of living, and students' growing place and their sex.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 Multiple Range Test. Students' stressors showed partial sex differences in each sub-category. Females feel more stress great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ibling relationship, whereas males feel more stress greater girl and boy friends. Students' stressor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only home environment and family stressor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That is, home environment stressors differed in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mother's employment, family type, level of living, and students' growing place except mother's employment. Family stressor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only family type and level of living.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들어가는 변화의 시기로 신체적, 성적, 인지적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또한 친구와 성인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적적응, 교육, 그리고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등 많은 적응적 요구를 갖게 된다. 이 시기에 새로운 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고 기성세대에 반항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여러가지 불안과 갈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Erikson도 청소년들에게 있어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특히 급속도로 발달해가는 현대에서는 청소년들이 많

은 변화에 대응해야하며 그들의 성취동기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스트레스가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고 청년초기의 혼란이 생물학적 변화와 정신 건강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Simmons & Blyth, 1987; Petersen & Ebata, 1987). Simmons, Blyth 그리고 Mckinney(1983)에 의하면 사춘기 변화는 또래와 비교해서 매우 다른 상태에 있거나 변화가 이롭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그리고 김명정(1982)의 조사연구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90%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적응곤란(가정, 학교, 대인관계문제)을 호소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심리적인 다양한 부적응(신경증, 우울증, 성격장애, 정신분열)을 보였다. 또한 Kagan과

Levi(1974)는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의 여러 형태로 병리적 원인, 사회적 모임, 대인접촉, 감각자극, 환경적 변화, 경제적 변화의 과다와 손상을 들었다. Meger와 Holmes 그리고 Rahe(1974)는 생활사건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가 질병과 관계가 있으며 질병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보고하였으며, Holmes와 Masuda(1974)는 불유쾌한 생활사건의 빈도와 질병이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발병발생의 시기와 관련이 많다고 제시하였다. 김정희(1987), 이도영(1990)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우울과 관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불안, 공포 등으로 식욕부진이나 변비, 설사, 요통, 복통, 두통, 불면, 고혈압, 심장발작 등의 질병을 일으키고 심신장애를 일으키며, 정서의 기복이 없어지고 즐겁거나, 슬프거나 웃는 등의 감정변화가 없어지는 반면에 갑자기 화를 내거나 흥분하고 충동적으로 기분을 내기도 하며 심하면 우울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청소년은 이상한 감정과 그리움을 일으키는 새로운 내적 압력에 대응하면서, 경험은 거부하지만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충동속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스트레스가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주고 청년 초기의 혼란이 생물학적 변화와 정신건강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Petersen & Ebata, 1987; Simmons & Blyth, 1987)로 뒷받침 된다.

청년 초기가 인생에 있어서 도전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만약 모든 청소년들이 다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성차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면, 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남학생들은 아동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여학생들은 청소년기 때 처음으로 심리적 곤란을 나타낸다(Ebata, 1987). 다른 연구(Rutter, 1986; Petersen & Ebata, 1987)에서는 청소년기에 여성의 우울증이 증가하여 17세 무렵에는 남성보다 정서가 더 불안하며 덜 행복해 하고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상이한 발달 형태에 대한 원인은 보다 명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유전인자, 호르몬, 환경적인 스트레스원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Rutter, 1986). 또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은 그들이 관계하는 여러 변인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스트레스가 다른 청소년에게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하며,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은 성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상담과 지도를 위한 자료제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사건에서의 스트레스원을 성별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스트레스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물학적 급성장과 인지발달 및 급격한 변화와 함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또한 아동기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새로운 가치와 태도 및 성격형성의 재체제화가 활발히 강화 학습되어 가는 제 2의 탄생기이대격변의 시기

이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인 변화에 저항할 수 없거나 고통스러운 자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내성적이고 분석적인 경향을 띠게 되며 사고와 행동은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 시기의 젊은이의 관심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기의 많은 발달 중에서도 인지적 발달의 영향이 많이 발달되는데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인 변화, 성격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방어기제의 출현, 미래의 교육 및 직업목표의 계획, 사회적, 정서적, 개인적 가치에 대한 관심, 나아가 개인의 정체감에 대한 관심 등이 인지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기의 정서는 강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고 기쁨, 슬픔, 노여움에 민감하고 공포와 고민이 많고 열등감, 자신감의 부족, 심한 자아의식, 정서의 불안정, 학업실패, 감정표출의 곤란, 가정불화, 자유활동의 부족, 주의산만, 친구와 이성관계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김제한, 1991). 이들은 억압과 제한에 항의하며 모든 종류의 권리와 기회를 요구하지만 대개의 청소년들은 성인의 책임을 떠맡는 시기를 지연하며 미성숙함이 연장된 것을 남몰래 환영하고 있다. 부모의 권위에 의한 강제압박이나 자유의 구속, 간섭, 물이해에 대한 반항이 지배적이고, 자신의 문제, 타인과의 관계, 장래문제 등 여러가지 불안으로 고민하며 새로운 것, 미지의 것을 탐색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한편 수치, 절망, 동정 등이 많이 나타나는데,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또래, 부모와 다른 성인과의 높은 사회적 압력 등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여러가지 심리적 변화가 오기도 한다.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 갑자기 화를 내거나 뽀루뽀해지고 쉽게 울며, 지나치게 온순하고 신체의 변화에 대해 당황해하고 지나치게 민감해한다. 또한 신체의 비율과 급속한 변화에 재빨리 적응할 능력이 없어 조절력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감의 부족으로 안정감이 없다.

연문희(1983)는 발달과업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진화 발전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여 부모의 기대에 동일시하려 하는 폐쇄된 젊은이, 갈등과 모순 속에서 자기의 동일시를 설정하지 못하면 역할혼미에 빠져 자기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어떤 확신이나 주관이 없이 살아가는 산만한 젊은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은 연장자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에 대한 문화적인 관념을 받아들여 자신의 자아상에 통합시킨다. 그리하여 이들의 특징적인 가치신념, 사고방식 취향과 활동 등이 청소년들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하나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들의 성격상의 변화도 심하다. 이것은 그들이 직면하거나 상상하는 모든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시험해 보려는 역할놀이의 한 표현이며, 청소년에게 이상주의는 그들의 가치체계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트레스(Stress)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어려움, 고난, 긴장, 불안, 좌절, 압박, 걱정이라는 말로 널리 사용되며, 그로 인하여 기질적 문화, 과식, 알콜중독 그리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생리 및 심리, 사회적 차원에서 파악되어 크게 세가지 개념접근으로 분류된다.

우선 초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특정 반응 또는 反應群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이다. 이 개념은 주로 생물학 및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종속 변인 즉 자극원(Stressor)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견해이다(이종목, 1989).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Selye(1985)의 "어떤 것이든 그 요구에 대한 신체의 비특정적 반응"이라는 정의로 대표된다. 그는 적용이 가능한 반응행동을 통해 방어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적응중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으로 설명하고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라는 관점으로 말하고 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거의가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두번째 접근은 스트레스를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양한 자극을 포함하는 입장으로, Selye는 이를 반응로서의 스트레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자극원(stressor)이라고 정의하였다. 자극원(stressor)이란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내적으로 정신적 감정적 반응에 빠뜨리게 하는, 즉 개인에게 위협하는

자극을 말하는데 스트레스의 근원(resourc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생활 변화 단위의 총점으로 스트레스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스트레스 연구들은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병학, 송옥현과 신윤희, 1981; 배영숙, 1980; 최태진과 강병조, 1981; 홍강의와 정도연, 1982). 그러나 위 두 접근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관점으로 스트레스 적응과정에 수반되는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세번째 접근으로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계론적 입장이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은 Lazarus와 Folkman에 의해 대표되는 관점으로 현재 가장 지지받고 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트레스 사건이 직접 부적응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개인의 스트레스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스트레스의 해결 경험 및 능력, 자존심, 사회적 지지의 지각 등을 제시(김정희, 1991)하였다.

오늘 날 십대들은 과거의 십대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와 위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좋지 못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의견이 있다. 청소년기에 상황의 위기와 발달의 위기가 결합되면, 스트레스와 갈등은 더 심해진다. 십대의 자살, 불규칙한 식사, 약물복용, 임신, 가출 등의 증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반영한다.

2. 스트레스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부의 교육수준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함에 따라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보호적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전문화된 사회제도에 의해 수행되어가고 대체 되어져감으로써 가정에

세의 그 역할 수행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기능은 가족만이 담당할 수 있는 고유영역으로써 현대 사회에 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송성자, 1987).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부의 교육적 기능과 권위가 점차 약화되어가는 현대 핵가족형태하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오히려 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Zunich(1962)는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자녀에 대한 모의 태도보다 부의 태도와 더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모의 역할보다 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 하였으며, 서경숙(1989)은 자녀의 행동 발달 및 성격 발달에서 못지 않게 부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아버지의 역할이 증대함에 비추어 볼때, 부는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상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부의 교육수준은 부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 요소로써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 경제 및 문화적 환경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의 교육수준은 그들의 성격과 인지발달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생각된다(박용자, 1988).

그러나 부의 교육수준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도, 적응행동, 상태불안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김혜례(1984), 노혜숙(1981)은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모의 교육수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초로 맺는 인간 관계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경험자, 양육자로서 자녀의 성격 형성과 정서에 지대한 결정적 영향자이다.

몇몇 연구에 인하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시 자원의 활용과 스트레스 원인 파악의 능력이 풍부해져 인지하는 스트레스양과 심리적 손상은 적어진다 하였다(권경희, 1985; 배종렬, 1985; 장병옥, 1985). 부모의 교육수준과 관련지어서 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의 자녀는 수동적, 감정적, 결정적이며 언어 발달이 늦은데 비하여,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낮고 안정감이 있으며 사

려성, 사회성, 지배성, 활동성이 높다는 연구(이경희, 1982)결과도 있다.

이와 같이 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스트레스 및 성격의 형성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스트레스 수준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 하는 연구(송금순, 1984)도 있어 단편적으로 교육수준만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요인별로 분석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모의 취업유무

현대사회에 있어 산업 발달에 따른 사회조직의 변화는 여성의 직장으로서의 진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또한 국민 생활의 향상, 교육기회의 평등, 여권 신장등은 여성의 사회 참여의식을 고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종사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도 증가추세에 있다(박용자, 1988). 한편 모의 취업유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김은경(1984)은 모의 취업유무는 고교생의 문제해결 결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진숙(1982)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그에 대한 만족, 불만족이 성역할 동일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Baruch(1973)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가 독립성, 자율성에 강하고, 남녀 평등적인 성역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 모성 결핍이 생길수 있으며, 어머니 자신이 갖는 자녀에 대한 보상심리 등으로 인한 과잉보호나 물질적 과대보상등으로 정상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 견해(Hoffman, 1974; Lynn, 1962)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의 유무 자체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의 질이 더 중요한 결정인자라는 주장(Pasquali & Callegari, 1978)도 있다. 즉, 어머니 자신이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 명예, 성취의욕과 만족감 등의 여하에 따라 자녀들에게 받아 들여지는 측면은 매우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부모유형

도시화와 산업화의 변화추세는 가정의 구조

적 형태와 가치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같은 변화는 인간에게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보통 편부모들은 양부모가 하는 두가지 역할을 혼자 다 해내야 한다는 것이 편부모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 자녀 훈육의 측면에서 보면 편부모는 여러가지 스트레스때문에 아동을 제대로 훈육할 에너지가 부족해 아동의 조그만 행동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처벌함으로써 학대에 이르게 되기 쉬우며, 계부모로 재조직된 가족에서는 계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계부에 의한 성적 학대(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3)로 많은 아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를 측정 한 결과 혼합, 편부모 가족의 학생들이 정상가족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연구결과(Kennedy, 1983)도 있다.

5) 생활수준

가정의 생활수준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래로 획기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현저한 경제수준은 현저히 좋아졌지만 계층간의 소득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왔다. 권경희(1985)는 높은 소득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김미영(1984)은 재정상의 곤경을 겪는 고교생의 생활사건 경험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과 스트레스간에 일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남유리, 1989; 정민자, 1983)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반된 연구결과들도 하위영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으며 대체로 소득이 낮을 때 생활상에 불안정한 요소가 더 많이 존재하므로 가정의 생활수준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6) 성장지

어디에서 태어나서 자랐는가는 청소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일선(1981)은 지방과 서울에서 자란 대학생의 성장지와

생활사건 변인간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이도영(1990)은 대도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사건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대도시 인구집중의 가속화 추세에 따라 주거환경에서 오는 청소년 위해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특히 잦은 주거의 이동과 주택가 향락산업의 확산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은 대전시내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2학년에서 각각 남학생을 3학급에서 134명, 여학생을 3학급에서 147명 총 281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부를 제외한 257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수(%)				
변인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변인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23(18.3)	19(14.5)	42(16.3)	부모유형	친부모	106(84.1)	112(85.5)	218(84.8)
	고 졸	66(52.4)	65(49.6)	131(51.0)		계부모	3(2.4)	2(1.5)	5(2.0)
	대졸이상	34(27.0)	45(34.4)	79 (30.7)		편부모	8(6.4)	12(9.2)	20(7.8)
모의교육 수준	중졸이하	47(37.3)	33(25.2)	80(31.1)	생활 수준	상	17(13.5)	18(13.7)	35(13.6)
	고 졸	66(52.4)	80(61.1)	146(56.8)		중	102(81.0)	103(78.6)	205(79.8)
	대졸이상	12(9.5)	18(13.7)	30 (11.7)		하	7(5.6)	10(7.6)	17 (6.6)
모의 취업 유무	유	51(40.5)	49(37.4)	100(38.9)	성장	농어촌	13(10.3)	9(6.9)	22(8.6)
	무	73(58.0)	82(62.6)	155(60.3)		중도시	14(11.1)	20(15.3)	34(13.2)
						대도시	98(77.8)	101(77.1)	199(77.4)

* 전체 N=257이며,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측정도구

1) 스트레스원 측정도구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Moos와 Moos가 개발한 청소년용 생활상의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자원 측정 도구(The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Inventory-Youth Form :

LISRES-Y,1992)를 기초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안한 후 이중 “시작된지 몇개월전이나?” 식의 질문내용 70여 문항은 연구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계처리에 어려움 이 예상되므로 삭제하여 간소화시키고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는 이들과 1차 면담을 통하여 본 척도에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건강과 학교성적의 스트레스원을 보완하였다. 이 보완과정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요인을 빈도수가 많은 순서대로 뽑아서 재구성하였다. 학교생활에서의 성적은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자가 김은정(1990)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아동학 전공교수와 아동학 박사과정 전공자, 인접학문 전공자와의 의견을 교환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스트레스원은 건강요인으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있고, 가정환경요인으로 주거

환경, 가족의 경제, 용돈이 있고, 가족관계요인으로 부모요인, 형제문제, 친척요인 등이 있다. 학교생활요인은 교우관계요인, 학교성적요인, 교사와의 관계요인을 포함한다. 한편 학교의 친구 및 이성친구요인으로는 학교의 친구 및 이성친구와의 관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본 질문지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척도별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스트레스원 측정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러는 편이다, 늘 그러는 편이다(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을 통제하고 아동학 전공자 1인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였다. 질문지 응답 소요시간은 평균 25-30분 정도였다.

<표 2> 생활상의 스트레스원 측정 도구(LISRES-Y)의 하위영역, 문항수 및 신뢰도

영역	내용	문항수	Cronbach α
1. 건강요인			
1)신체적 건강	신체적 증상(호흡곤란, 소화불량, 기관지염 등)	18	.70
2)정신적 건강	정신적 건강	11	.59
2. 가정환경요인			
1)주거환경	공간의 쾌적, 안전도 문제	6	.70
2)가족의 경제	가족의 경제상황	5	.82
3)용돈	개인의 용돈	6	.78
3. 가족요인			
1)부모요인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른 부모관계에서의 문제와 부모들간의 문제	29	.85
2)형제요인	형제와의 관계	11	.91
3)친척요인	친척과의 관계	10	.81
4. 학교생활요인			
1)교우관계	학교친구와의 관계	15	.60
2)학교성적	학교성적	7	.69
3)교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10	.72
5. 학교의 친구 및 이성친구	학교의 친구와의 관계 이성친구와의 관계	22 18	.63 .97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 1995년 3월에 Moos의 질문지를 번안하고 고등학생 3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원을 보완하였으며, 다시 1995년 6월 보완 수정된 질문지로 50명의 고등학생에게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응답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 7월 1일에서 21일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원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고등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고등학생의 성별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원을 분석한 결과를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원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원의 차이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스트레스 하위영역은 신체적 건강($t=-2.87, p<.01$), 정신적 건강($t=-6.01, p<.001$), 형제관계($t=-2.15, p<.05$), 이성친구관계($t=3.34, p<.001$)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형제관계에서는 여자고등학생이 남자고등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이성친구관계에서는 남자고등학생이 여자고등학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원의 차이

변인	남학생	여학생	t 값	변인	남학생	여학생	t 값
신체적 건강	1.85(.43)	1.97(.46)	-2.97**	형제관계	2.56(.66)	2.80(.46)	-2.15*
정신적 건강	2.83(.28)	2.98(.25)	-6.01***	이성친구관계	1.14(1.19)	.84(1.26)	3.34***

* $p<.05$ ** $p<.01$ *** $p<.001$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원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건강, 가정환경, 가족, 학교생활, 학교외(이성친구 포함) 친구의 5가지 하위영역별로 스트레스원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에 따라 고등학생의 하위영역별 스트레스원의 차

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표 4>에서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에 따라 고등학생의 가정환경 스트레스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주거환경($F=6.41, p<.01, F=8.55, p<.001$), 경제($F=10.88, p<.001, F=8.29, p<.001$), 용돈($F=4.40, p<.05, F=3.40, p<.05$)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다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 고졸인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은 대졸이상 교육수준의 아버지를 둔 고등학생보다 주거환경, 경제,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 고졸인 경우가 대졸이상보다, 고졸인 경우가 대졸이상의 어머니를 둔 고등학생이 가정환경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부모유형에 따라서는 경제($F=3.89, p<.05$)와 용돈($F=11.4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편부모, 친부모의 고등학생은 계부모의 고등학생보다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편부모의 고등학생은 친부모나 계부모의 고등학생보다 더 많

은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생활수준에서는 주거환경($F=12.45, p<.001, F=4.08, p<.05$), 경제($F=30.22, p<.001, F=5.66, p<.01$), 용돈($F=32.84, p<.001, F=6.08,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생활수준이 하류층인 고등학생은 중류층과 상류층보다 중류층 고등학생은 상류층 고등학생보다 주거환경, 경제, 용돈의 가정환경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장지에 따라서는 주거환경(F=4.88, p<.01), 경제(F=8.0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도시에서 자란 고등학생은 대도시에서 자란 고등학생보다 주거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농어촌과 중도시에서 성장한 고등학생은 대도시에서 성장한

<표 5>에서 부모유형을 살펴보면, 부와의 관계(F=21.70 p<.001, F=13.07 p<.001), 모와의 관계(F=4.80 p<.01, F=11.29 p<.001), 부모님 관계(F=4.10 p<.05, F=6.28 p<.01), 친척관계(F=4.06,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계부모의 고등학생은 친부모, 편부모의 고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정환경 스트레스원

평균(표준편차)

변인	구분	주거환경	경제	용돈	전제
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2.08(.54)b	1.89(.50)c	1.64(.55)b	1.88(.43)b
	고졸	2.02(.49)b	1.66(.55)b	1.60(.54)b	1.77(.43)b
	대졸이상	1.79(.50)a	1.44(.47)a	1.40(.49)a	1.55(.39)a
	F 값	6.41**	10.88**	4.40*	10.72***
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2.13(.54)c	1.77(.55)c	1.65(.60)b	1.86(.46)c
	고졸	1.92(.48)b	1.69(.53)b	1.55(.52)ab	1.69(.41)b
	대졸이상	1.71(.46)a	1.32(.41)a	1.36(.44)a	1.47(.35)a
	F 값	8.55***	8.29***	3.4*	9.67***
모의 취업 유무	유	1.95(.51)	1.60(.52)	1.53(.53)	1.27(.32)
	무	2.02(.53)	1.79(.61)	1.69(.60)	1.38(.36)
	F 값	2.06(.59)	1.80(.60)	1.78(.67)	1.41(.38)
부모 유형	친부모	1.94(.51)	1.62(.52)a	1.52(.49)b	1.70(.31)b
	계부모	1.77(.32)	1.12(.27)b	1.20(.27)b	1.36(.13)b
	편부모	2.15(.50)	1.84(.68)a	2.06(.72)a	2.02(.40)a
	F 값	1.93	3.89*	11.41***	7.00***
생활 수준	상	1.67(.49)c	1.26(.37)c	1.22(.37)c	1.37(.31)c
	중	1.98(.49)b	1.63(.48)b	1.55(.49)b	1.72(.35)b
	하	2.40(.56)a	2.38(.69)a	2.37(.60)a	2.43(.45)a
	F 값	12.45***	30.22***	32.84***	43.01***
성장지	농어촌	2.13(.63)ab	1.99(.62)b	1.70(.57)	1.97(.50)c
	중도시	2.16(.46)b	1.77(.59)b	1.62(.63)	1.85(.47)b
	대도시	1.91(.50)a	1.56(.50)a	1.53(.52)	1.67(.41)a
	F 값	4.88**	8.08***	1.28	6.50***

* p<.05 ** p <.01 *** p<.001

고등학생보다 경제적인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환경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에 따라 가족 스트레스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등학생보다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부모의 고등학생이 편부모의 고등학생보다 부모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친척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편부모의 고등학생이 친부모의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부모님관계(F=.94,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생활수준이 중, 하류층인 고등학생은 상류층의 고등학생보다 부모님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성장지는 고등학생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생활, 학교외/이성친구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형제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이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박지희(1987)의 정신건강 하위영역 9개 영역과 성별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원

평균(표준편차)

변인	구분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부모님관계	형제관계	친척관계	전체
부모유형	친부모	2.28(.87) a	2.30(.59) a	2.18(.66) b	2.31(.51)	2.07(.49)ab	2.22(.36)
	계부모	4.00(2.49)b	3.13(2.77)b	1.64(.96) a	2.22(.25)	1.90(.33)b	2.58(.79)
	편부모	2.25(.66) a	1.95(1.48)a	1.78(1.12)ab	2.39(.78)	2.39(.54)a	2.18(.47)
	F 값	21.70***	4.80**	4.10*	.28	4.06*	2.33
생활수준	상	2.15(.87)	2.18(.62)	1.81(.55)b	2.17(.49)	2.05(.53)	2.07(.39)b
	중	2.35(.65)	2.26(.79)	2.15(.76)a	2.32(.55)	2.10(.49)	2.22(.38)a
	하	2.19(.66)	2.58(1.14)	2.34(.88)a	2.41(.55)	2.28(.46)	2.36(.38)a
	F 값	1.44	1.50	3.94*	1.44	.26	3.79*

* p<.05 ** p<.01 수준 *** p<.001

한편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건강스트레스원, 학교생활스트레스원, 학교외/이성친구스트레스원을 살펴보면, 어느 변인도 건강스트레스, 학교생활스트레스, 학교외/이성친구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 등은 고등학생의 건강, 학교생활, 학교외/이성친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V. 논 의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고등학생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성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원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 가정환경, 가족관계,

고 보고한 연구와, 남호창(1965), 황정규(1979), 임규혁(1984), 노재숙(1990)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상태를 측정한 결과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정신건강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좌절상황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 외부적인 갈등요인이 더 많기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남아와 여아는 서로 다른 사회화 경험, 즉 여아들은 남아보다 대인관계에 애착적이며(Douvan & Adelson,1966), 여아의 경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도록 강화를 받기때문에(Barnett, Brauch & Biener, 1987)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형제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 압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성친구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남학생의 경우 데이트 등 청년문화가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가지 행동상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여한다(Gold & Petronio,1980)는 연구결과도 일치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에 따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원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 가정환경, 가족관계, 학교생활, 학교의/이성친구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원은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가정환경 스트레스원은 모의 취업유무를 제외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가정환경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 경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정환경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인간관계인 부모는 고등학생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결정적 영향자임을 시사해 준다.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일 수록 낮은 경제적 수준을 가짐으로써 고등학생에게 주거환경, 경제, 용돈의 가정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유형에서 편부모와 친부모의 고등학생은 계부모의 고등학생보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고, 편부모의 고등학생은 친부모와 계부모의 고등학생보다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쪽 부모만 있는 편부모 가정의 고등학생이 맞벌이가 가능한 양쪽부모가 있는 친부모, 계부모 가족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정경제와 자신의 용돈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성장지가 대도시일 수록 주거환경, 경제, 용돈에 대한 가정환경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경제적 풍요를 매우 중시하며, 대도시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갈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생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원은 부모유형과 생활수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계부모의 고등학생은 친부모나 편부모의 학생보다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며, 친부모의 고등학생은 계

부모의 고등학생보다 부모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서 계부모의 고등학생이 계부모와의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계부모의 고등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할 때는 그들 부모와의 연계성 있는 가족상담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에 반해 편부모의 고등학생이 친척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결과는 후속 연구결과에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생활수준이 상류층인 고등학생이 중류층과 하류층 고등학생보다 부모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류층 가정의 고등학생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활하는데는 중류층, 하류층 고등학생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생활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원은 하위영역인 가정환경과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만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가정환경 스트레스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유형, 생활수준, 성장지에 따라 다르지만,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다. 또한 고등학생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부모유형과 생활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의 교육수준, 모의 취업유무, 성장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의 변수들을 연구주제로 삼을 때에는 총체적인 단일개념으로 다루기 보다는 하위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련변수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논의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발달단계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제한점들을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을 성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스트레스에 노출된 남녀 고등학생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 및 상담자료제공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한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수방.(1987).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병학, 송옥현 및 신윤희.(1981). 한국인의 생활사건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 62-78.
- 권경희.(1985).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2).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I. 정신건강연구 37.
- 김을환.(1986). 고교생의 스트레스 실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겸.(1987).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제한.(1991). 청년발달심리학. 서울세광공사, 161-162.
- 김창대.(1985).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래.(1984).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노혜숙.(1981). 일부 여자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1991).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불안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자.(1988).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숙.(1980). 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방법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렬.(1985).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말숙.(1988). 문제행동 청소년 가족과 일반 가족간의 가족역동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일선.(1981). 생활사건 변화와 불안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금순.(1984). 일부 도시 생활인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해소에 관한 조사 연구. 춘천 간호전문대 논문집, 14, 35-70.
-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에 관련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문희.(1983). 청소년 이해와 지도. 대전:창하사.
- 이도영.(1990).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대처반응에 관한 연구. 인하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198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1992). 중학생의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목.(1989). 직무스트레스의 원인, 결과 및 대책. 성원사.
- 이재원.(1989). 스트레스 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책략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조길자.(1982).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변화 사건과 그 척도. 중양의학, 43권 2호.
- 이정순.(1988).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1980). 청년기 학생들의 건강문제 실천 및 요구에 관한 실태조사. Journal of Korea Nursing. vol.4.No.9.
- 임용우.(1984) 가족체제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덕중.(1989). 소년집단비행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범죄연구, 제 7편, 151-179.
- 장병욱.(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성혜.(1989).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및 대처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진, 강병조.(1981). 한국에서의 사회 재적용 평가 척도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 131-136.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1993).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 9, 49-64.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90-104, 192-204.
- 함중환.(1981). 청소년 이해를 위한 접근. 경찰고시 제18호, 315.
- 황정규.(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사대논총 41, 25-66.
- 홍강의, 정도연.(1982). 사회 재적용 평가 척도 제작. 신경정신의학, 21, 123-136
- Band, E. B., & Weise, Z.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Coleman, J. S. (1974). Youth: Transition to adultho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pas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Compass, B. E., Makarne, R.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Daniels, D., & Moos, R.H. (1990). Assessing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olescents : Applications to depress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268-289.
-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ep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No 6, 1016-1024.
- Gold, M., & Petronio, R. J. (1980). Delinquent behavior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Homl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Homles, T. H., & Masuda, M.(1974). Life change and illness susceptibility. In .S.Dorenwend(Eds.), Stressful life events:Their nature and effects. New York:Wiley.
- Kagan, A, & Levi, L. (1974). Adaptations of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to man's abilities and needs. In L. Levi(ED.), Society, Stress and Disease(Vol.1).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o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 Lundberg, V., Theorell, T., & Lind, E. (1975). Life changes and myocardial infarction:Individual difference in life change scal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 27-32.
- Menaghan, E. G. (1983). Individual coping effort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H. Kaplan (Eds.), Psychologic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academic. New York : Academic Press, 157-191.

- Moos, R. H., & Billin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In Goldberger & Bresnitz (Eds.), Handbook of Stress, 12-230. New York : Free Press.
- Newman, B. M. (1979). Coping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vol 22, 255-262.
- Offer, D., & Offer, J. (1987). From teenage to young manhood. A Psychological study : New York; Basic Book.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etersen, A. C., & Ebata, A. T. (1987). Developmental transit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Implications for prevention. In K. Hurrelmann (Ed.), Social prevention and intervention. New York: de Gruyter.
- Reid, M. S., Landesman, S., Treder, R., Jaccard, J. (1989). My family and friends: Six to twelve years old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60, 896-910.
- Roth, S., &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 Rutter, M. (1971). Parent-child separation: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12, 233-256.
- Rutter, M. (1981).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 and some ques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22, No 4, 324-346.
-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The health-related function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381-406.
- Siegel, J. M., & Brown J. D. (1988). A prospective study of stressful circumstances, illness, symptoms, and depressed mood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15-721.
- Simmons, R. G., & Blyth, D. A.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New York: DeGruyter.
- Simmons, R. G., Blyth, D. A., & Mckinney, K. L. (1983).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puberty on white females. In J. Brooks-Gunn. & A. C. Petersen (Eds.), Girls at puberty: 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Plenum.
- Selye, H. (1985). History and present a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A. Monat & R. S. Lazarus(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Weiner, I. 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